KOTRA, 4월 아시아 첨단 연구 및 실험기기전 개최
– 첨단 연구 및 실험 기자재 대덕연구단지 총집결 –

KOTRA는 오는 4월 21일(수)~24일(토) 동안 대전무역전시관(KOTREX)에서 아시아 첨단 연구 및 실험기기 전시회(Asia Science & Lab Instrument Exhibition 2004, ASSE 2004)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전시회는 국내외에서 약 150개 업체가 참가하여 첨단 연구/실험용 기자재, 교육용 기자재, 이공학부 학생 개발품 또는 연구과제 출품작등을 전시할 예정이며 중국, 아시아, 중동 등지에서 50여 명의 해외 바이어도 유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던 과학기기업체들의 해외 시장, 특히 아시아,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등의 일부 바이어는 방한이 확정된 상태이다.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하에 KOTRA는 99개 해외조직망을 통해 적극적인 참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과학기기활용 세미나, User Meeting, Workshop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연구원 및 과학기술인 뿐만아니라 학계관계자, 대학교수, 과학교사, 이공학부 학생 등 전국에서 관람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KOTRA는 동 전시회를 국제전시회로 만들어 향후 과학 및 연구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전문 전시회로 육성할 계획이다. 3월말 까지 참가기업의 신청을 받는다.(문의 : www.asse.or.kr 042-365-3000)

– 과기, 산자, 정통부 장차관 및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요 국정과제 추진 관련 업무협조와 정책공조 방안 논의 –

오 명(吳明) 과기부 장관, 이희범(李熙範) 산자부 장관,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 임상규(任祥奎) 과기부 차관, 김칠두(金七斗) 산자부차관, 김창곤(金彰坤) 정통부 차관, 박기영(朴基榮)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2월 14(일) 서울시내에서 오찬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책간담회는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차세대성장동력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책결정자이자 시책추진의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활한 업무협조와 정책공조를 실천하고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 · 조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의 목표지향적 추진방안 ▲외국 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확대 및 체계화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기획단의 범부처적 운영 추진 등이 논의되었다.

2004년도 기술경영인상 시상

민계식 박윤소 양기곤 주승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회장 허영섭)은 2월 18일(수) 오전 11시 50분 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강남 삼성동 소재) 개최되는 제26차 정기총회에서 2004년도 기술경영인상을 시상했다. 동 시상제도는 우리 나라 산업기술 발전과 기술혁신 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한 기술경영인을 선정 · 포상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기술경영인의 지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997년부터 제정 · 시상하고 있으며 CTO,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연구소장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게임수출협의회 출범

게임수출협의회가 국산게임의 해외마케팅 협력을 위하여 지난 2월12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경 KT사장 등 게임업계, 통신사업자, 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결성된 게임수출협의회의 엔씨소프트, 웹젠, 네오위즈, CCR, 액토즈소프트, 조이온, 컴투스 등 80여 개의 국내 게임업체와 KT, SKT, KTF, LGT 등 통신사업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은 국산게임의 해외수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초대회장에는 KT의 김우식 영업본부장이 선임됐다. 협의회는 이날 사업계획 발표에서 외국 게임시장의 현황과 외국의 상거래관행 등 시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게임업체들에 제공키로 했다. 또한 KT 등 통신사업자들은 유망게임을 발굴· 투자하고 해외 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해 게임콘텐츠의 해외마케팅과 연계하는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업계 및 사업자, 지원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산게임의 발굴·투자 및 해외마케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복권' 사업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관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2월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기술개발복권 사업을 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관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술복권 사업은 연간 700억~8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세금과 인건비,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한 연간 약 12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해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설립됐다.

과기부, 세포연구에 10년간 1천500억 원 투입

세계 과학기술계를 깜짝 놀라게 한 황우석·문신용 교수(서울대) 연구팀의 '인간 배아 줄기세포 배양' 연구성과를 계기로 새삼 세포연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7월 줄기세포 등 세포응용 연구를 위해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을 구성, 오는 2012년까지 모두 1천520억 원(정부 1천240억 원, 민간 28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2002년 7월부터 1년6개월 동안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 모두 167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 성공에 핵심역할을 한 문 교수는 이 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고 황 교수도 이 사업단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은 과기부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전략기술을 선택,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프로젝트별로 민간전문가를 단장으로 연구사업단이 구성·운영된다.

지금까지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사업단은 모두 23개가 구성돼 연구중이며 세포응용연구사업단도 그 중 하나다.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오는 2012년까지 줄기세포의 분화 조절인자 100종 이상을 발견하고 10종 이상의 기능성 세포 분화법을 개발, 난치성 질환을 정복함으로써 고부가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Eco-Academy 교육생 모집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제3기 Eco-Academy 교육생을 모집한다. 작년 제2기 교육생에 이어 환경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을 병행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50명을 선발하고 모집기간은 3월 8일까지이며 환경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총 12주로 19강좌를 배우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문의 : www.epa.or.kr, 031-790-2463)

기술사제도 운영에 불만 고조 ·· 육성대책 마련중

현재 기술사의 관리 및 육성은 노동부, 육성 및 활용시책 수립은 과기부가 담당(기술사법)하고 있다. 현재 학력 및 경력 특급기술자(일명 '인정기술사') 제도의 광범위한 운영으로 인하여, 자격제도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술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기부에서는 기술사들의 불만 사항을 수렴, 이 제도의 신뢰성 및 사기진작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술사법을 개정하는데 중점사항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술사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에 개최한 40회 정기총회에서 이환범 대영엔지니어링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개최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PhO-2004: 조직위원장 김정구 서울대 교수)가 오는 7월15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공과대학교 및 경주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해 전세계 70여 개국으로부터 1천여 명의 물리학 영재들과 물리학 및 기초과학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유네스코(UNESCO) 후원으로 매년 열리는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등 국제과학올림피아드의 하나로 물리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청소년 물리학 경진대회이다.

2004년도 선도과학자육성사업 시행

한국과학재단은 최근 3년간 세계적 수준의 우수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여 연구능력이 검증된 기초과학분야의 우수연구자를 선별 · 지원하여 창의적 인재를 중점 육성하고 세계적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2004년도 선도과학자육성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분야는 수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이며 창의적인 기초과학 연구과제에 연간 1억 원 이내의 연구비가 3년간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국내대학(교) 정규직 교수 및 국공립대 · 정부출연연 · 민간 연구소 등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JCR(Journal Citation Report) 인용지수에 대한 적정제한이 있다. (자세한 문의 : 042-869-6630)

IT 관련 교과 개편 124개교에 160억 원 지원

산업 인력수요가 많은 컴퓨터 · 소프트웨어분야와 IT(정보기술) 신성장 동력분야 등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한 124개 학교에 16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정보통신부는 '2004년도 IT.비IT학과 교과과정 개편지원사업' 대상 선정결과 산업체의 인력.기술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대학교 29개교, 전문대 34개교, 실업계 고교 5개교 등 총 124개교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는 특히 체계적인 IT 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SI), 멀티미디어 및 게임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정보기술 등 컴퓨터 · 소프트웨어 분야에 39개를 선정해 6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학교에는 IT관련 교육 · 실습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 · 교재 개발비로 IT학과 대학에는 최장 2년간 연 1억5천만 원, 전문대학은 2년간 최장 연 1억 원까지, 실업계 고교는 연 1억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비IT학과 대학에는 최장 2년간 연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정통부는 이번 사업으로 IT인력 채용시 신입직 인력 채용 증가를 통해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IT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통부는 또 내년에 산업체 수요분석을 통해 제시될 하드웨어분야 시범 트랙을 'IT인력양성 SCM 모델'에 추가적으로 포함해 소프트웨어분야 및 하드웨어분야 위주로 교과과정 개편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수자에 대해서는 인턴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문의 :정보통신정책국 750-2325)

정리 _ 이재성 기자 jslee@kofst.or.kr